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수행평가의 성취 기준 양상 탐색

조 선 옥*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음악 수행평가에 제시된 성취 기준의 내용을 탐색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112개교의 3, 4학년 1·2학기 수행평가계획서 448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에서의 실행되는 음악과의 평가는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기,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창작 활동이 평가에서 소외되는 비중이 높았다. 둘째, 학교 수행평가에 제시된 학교 수준 성취 기준은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수정 및 변형, 또는 구체화하여 반영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셋째, 생활화 영역에 제시된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은 영역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 정착된 수행평가의 실제 양상이 관행화, 정형화되어 수행평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이 필요하다.

※ 주제어: 음악과 평가, 수행 평가, 성취 기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영역·내용 체계·활동별 반영 양상
2. 국가 수준 성취 기준 반영 양상
3. 오류가 있는 경우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서울은빛초등학교 교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에서 평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뿐 아니라, 교수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음악과의 평가는 전 영역과 활동에 걸쳐 균형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음악적 역량은 특정 영역이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년 단위로 학생을 담당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교사는 학생 입장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평가에서 소외되거나 편중되는 부분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기 어렵다. 이에 학생 입장에서 종적으로 균형 있는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는 타당한 과정이어야 한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상세화한 것이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이다.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이 현장의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목표를 타당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성찰해보는 것으로서,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의 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현장에서 실시되는 음악과 평가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는 중등에 비해 초등에서는 드문 편이다. 연구 방법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평가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가계획서를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과 평가의 양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는 작업은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균형 있는 평가’와 ‘교육과정 목표 구현’이라는 관점아래 초등학교 음악 수행평가에서의 성취 기준의 양상을 탐색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음악과 3~4학년 수행평가 계획서에 반영된 학교 수준 성취 기준은 각 영역, 내용 체계, 활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수행평가계획서에 제시된 학교 수준 성취 기준은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어떤 양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셋째,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과, 현장에서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나. 연구 대상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559개교의 20%에 해당하는 112개교의 2014년 3학년 1·2학기, 2015년 4학년 1·2학기 학교수행평가계획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도를 연차적으로 설정한 것은 학생 입장에서 3~4학년을 거치는 동안 받게 되는 평가의 양상을 종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표 1> 연구 대상

연도	대 상	
2014년	3학년 1학기 112부	3학년 2학기 112부
2015년	4학년 1학기 112부	4학년 2학기 112부
합계	112개교 총 448부	

다. 연구 방법 및 절차

1) 표본 추출 및 자료 수집

2016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공립 559개 초등학교 중 계통 표본 추출(Systematic Random Sampling) 방식으로 112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112개 학교의 수행평가계획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초·중등 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 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였다.

2) 분석 기준 수립

수집한 수행평가계획서에 제시된 1,528개의 학교수준 성취 기준을 관련 선행 연구, 예비 조사(pilot study), 전문가 집단과의 자문과 협의를 통한 수정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은 최종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2> 최종 분석 기준

관점	분석 기준
1. 영역, 내용 체계, 활동의 충실한 반영	가. 영역별 반영(학년별/ 학년군)
	나. 내용 체계별 반영(학년별/ 학년군)
	다. 활동별 반영(가창/기악/감상/창작)
2.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의 반영 양상	라.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마.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3. 기타	바. 오류가 있는 경우

3) 데이터 코딩 및 분석

위 기준에 따라 자료를 코딩하기 위하여 분석의 관점, 분석 대상에 따라 같은 세 가지 분석틀을 만들었다. 각 분석틀은 2장의 해당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 제시하였다. 분석 틀에 의해 재구성한 자료는 엑셀로 코딩한 뒤 SPSS Statistics v.24로 빈도 분석 분석하고, 구체적 예와 특징 등의 양상을 탐색한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라.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것을 자료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사이트에 공시된 수행평가 내용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행된 실제 수행평가 내용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 112개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Ⅱ. 분석 결과 및 해석

1. 영역·내용 체계·활동별 반영 양상

학교별로 음악과 평가가 영역별·내용 체계별·활동별(가창/기악/감상/창작)로 균형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특별히 집중되거나 소홀히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 제시된 <분석틀 1>에 의해 코딩된 각 성취 기준은 다시 학교별로 모아 학기별, 학년별, 3~4학년군으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3~4학년군을 마쳤을 때 학생입장에서 균형 있는 평가가 시행되었는지의 결과를 알아보았다.

<표 3> 분석틀 1. 영역, 내용 체계, 활동의 충실한 반영

학교 수준 성취 기준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돌림노래를 부를 수 있다.				
가. 영역별 반영	① 표현	○	다. 활동별 반영	① 가창	○
	② 감상	.		② 기악	.
	③ 생활화	.		③ 감상	.
				④ 창작	.
나. 내용 체계별 반영	①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
	②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
	③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
	④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
	⑤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
	⑥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⑦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

수집한 112개교의 학교수행평가계획서 중 제시된 영역과 성취 기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32개의 성취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26개교는 본 1절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6개교만 대상으로 삼았으며, 32개 성취 기준은 뒤의 ‘오류가 있는 성취 기준’에 포함시켜 별도로 분석하였다.

가. 영역별 반영 양상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표현, 감상, 생활화 세 영역의 평가를 1회 이상

모두 시행한 학교는 ‘균형’으로, 세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이라도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균형’으로 표현하였다.

<표 4> 영역별 균형 있는 평가 시행 학교_학기별

평가 횟수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학교 수	퍼센트	학교 수	퍼센트	학교 수	퍼센트	학교 수	퍼센트
균형	72	83.7	79	91.9	71	82.6	76	88.4
불균형	14	16.3	7	8.1	15	17.4	10	11.6
합계	86	100.0	86	100.0	86	100.0	86	100.0

<표 5> 영역별 균형 있는 평가 시행 학교_학년별

평가 횟수	3학년		4학년	
	학교 수(N)	퍼센트(%)	학교 수(N)	퍼센트(%)
균형	86	100.0	86	100.0
불균형	0	0.0	0	0.0
합계	86	100.0	86	100.0

<표 6> 영역별 균형 있는 평가 시행 학교_3~4학년군

평가 횟수	3·4학년군 전체	
	학교 수(N)	퍼센트(%)
균형	86	100.0
불균형	0	0.0
합계	86	100.0

분석 결과 학기별로는 세 영역의 평가가 고루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학년별 및 3~4학년군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배제된 영역 없이 영역별 1회 이상 평가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 입장에서 한 학년을 지날 때마다 표현, 감상, 생활화 세 영역에서 최소 한 번씩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 내용 체계별 반영 양상

2009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7> 2009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체계
표현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감상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생활화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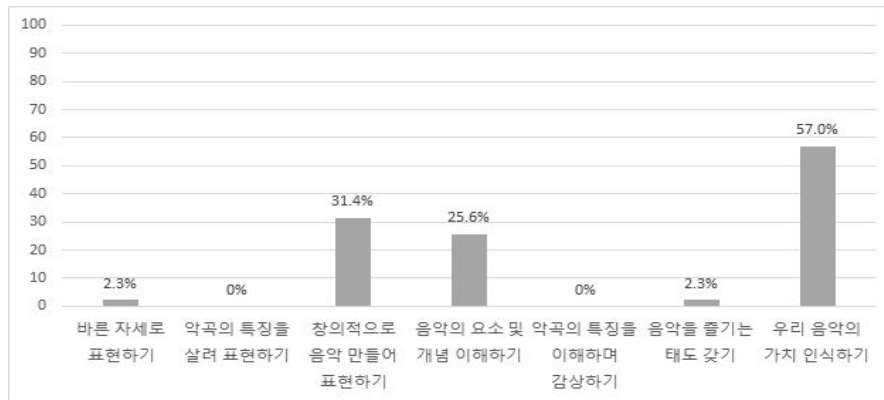
학교별로 위 7가지 내용 체계를 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을 학년별, 학년군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각 내용 체계 반영 학교_학년별

내용 체계	여부 비율	3학년			4학년		
		반영	미반영	합계	반영	미반영	합계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학교 수(N)	78	8	86	67	19	86
	비율(%)	90.7	9.3	100.0	77.9	22.1	100.0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학교 수(N)	76	10	86	80	6	86
	비율(%)	88.4	11.6	100.0	93.0	7.0	100.0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학교 수(N)	37	49	86	41	45	86
	비율(%)	43.0	57.0	100.0	47.7	52.3	100.0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학교 수(N)	43	43	86	42	44	86
	비율(%)	50.0	50.0	100.0	48.8	51.2	100.0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학교 수(N)	85	1	86	80	6	86
	비율(%)	98.8	1.2	100.0	93.0	7.0	100.0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학교 수(N)	82	95.3	86	80	6	86
	비율(%)	4	4.7	100.0	93.0	7.0	100.0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학교 수(N)	18	68	86	24	62	86
	비율(%)	20.9	79.1	100.0	27.9	72.1	100.0

<표 9> 각 내용 체계 반영 학교_ 3~4학년군

내용 체계	평가 여부	평가	미평가	합계
	비율			
1-1.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학교 수(N)	84	2	86
	비율(%)	97.7	2.3	100.0
1-2.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학교 수(N)	86	0	86
	비율(%)	100.0	0.0	100.0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학교 수(N)	59	27	86
	비율(%)	68.6	31.4	100.0
2-1.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학교 수(N)	64	22	86
	비율(%)	74.4	25.6	100.0
2-2.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하기	학교 수(N)	86	0	86
	비율(%)	100.0	0.0	100.0
3-1.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학교 수(N)	84	2	86
	비율(%)	97.7	2.3	100.0
3-2.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학교 수(N)	37	49	86
	비율(%)	43.0	57.0	100.0



<그림 1> 각 내용 체계를 평가에 미반영한 학교_ 3~4학년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7개의 내용 체계 중 세 가지 내용 체계(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가 학기별, 학년별, 3~4학년군으로 진행될 때마다 누적되어 평가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중,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는 음

악의 전 활동을 통해 가르치고 평가되어야 하기에 본 분석만으로 평가에서 소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충실하게 반영되어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마다 평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은 내용 체계가 하나씩 존재한다는 것은 역으로 각 영역을 평가할 때 특정 내용 체계가 평가에 집중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그 내용 체계를 충실히 지도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내용이 평가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누적된다면 해당 내용 체계에 대한 성취도의 확인 및 동기 유발, 교수 학습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활동(가창, 기악, 감상, 창작)별 반영 양상

흔히 음악 활동을 가창, 기악, 감상, 창작 네 부분으로 나누곤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별 지도 방법’에서도 표현 영역을 다시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로 분류하여 각 활동별로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학교의 평가에 네 활동이 고루 포함되고 있는지 학기별, 학년별, 학년군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표 10> 활동별 평가 반영 학교_3학년

	가창		기악		감상		창작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반영	80	93.0	79	91.9	86	100.0	37	43.0
미반영	6	7.0	7	8.1	0	0	49	57.0
합계	86	100.0	86	100.0	86	100.0	86	100.0

<표 11> 활동별 평가 반영 학교_4학년

	가창		기악		감상		창작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반영	80	93.0	79	91.9	86	100.0	41	47.7
미반영	6	7.0	7	8.1	0	0.0	45	52.3
합계	86	100.0	86	100.0	86	100.0	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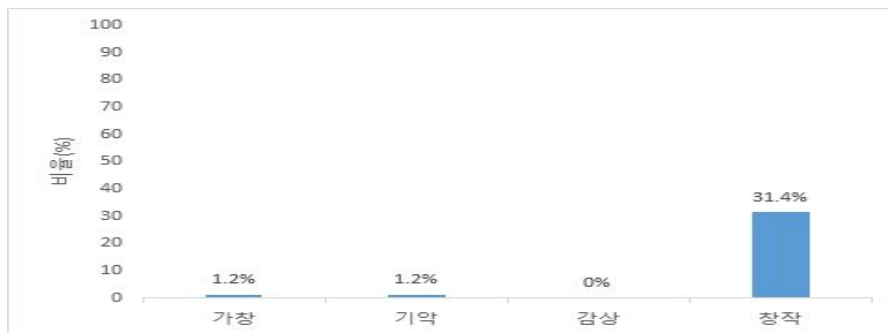
<표 12> 활동별 평가 반영 학교_3~4학년군

	가창		기악		감상		창작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반영	85	98.8	85	98.8	86	100.0	59	68.6
미반영	1	1.2	1	1.2	0	0.0	27	31.4
합계	86	100.0	86	100.0	86	100.0	86	100.0

<표 13> 각 활동별 균형 있는 평가 시행 학교_학년별, 3~4학년군

	3학년		4학년		3·4학년군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학교 수 (N)	비율 (%)
균형	34	39.5	35	40.7	57	66.3
불균형	52	60.5	51	59.3	29	33.7
합계	86	100.0	86	100.0	86	100.0

※ 균형: 네 활동 모두 반영, 불균형: 네 활동 중 하나 이상 미반영



<그림 2> 각 활동별 평가 미반영 학교_3~4학년군

학년별 분석 결과를 보면 가창, 기악, 감상 활동에 비해 창작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누적되어 3~4학년 2년 동안 창작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학교의 비율이 31.4%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내용 체계 중 표현 영역의 ‘1-3.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가 평가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높은 것과 같은 결과이다. 본 장의 분석 대상인 86개 학교 중 31.4%에 해당하는 27개 학교에서 2014년과 2015년에 3~4학년이었던 학생들은 2년 동안 창작 활동의 평가는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이다.

2. 국가 수준 성취 기준 반영 양상

여기에서는 학교수행평가계획서에 제시된 학교 수준 성취 기준은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적용(수정 및 변형,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학교 수의 비율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계획서에 제시된 개별 성취기준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전체 112개 학교에서 수집한 1,528개 중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성취 기준 78개를 제외한 1,440개를 아래 두 번째 분석틀에 의해 분류한 뒤, 각 양상을 탐색하였다.

<표 14> 분석 틀 2. 국가 수준 성취 기준 반영 양상

학교 수준 성취 기준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돌림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국가 수준 성취 기준 반영 양상	반영한 국가 수준 성취 기준
라. 그대로 반영	.	.
마. 적용하여 반영	○	4-1-2-1

위 <표 14> 중 ‘반영한 국가 수준 성취 기준’에는 ‘4-1-2-1’이라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3·4학년군 성취 기준에 고유번호를 매긴 것이다. 고유번호의 각 자릿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4	1	2	1
3·4학년군	영역	내용 체계	성취 기준

앞의 숫자 4는 3~4학년군을 뜻하는데 각 학년군 중 상급 학년을 대표로 사용한다. 두 번째 숫자인 1은 각 영역을 뜻하는데 표현은 1, 감상은 2, 생활화는 3으로 표기한다. 세 번째 숫자는 각 영역의 첫 번째 내용 체계는 1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체계는 2로 표기한다. 마지막 숫자인 3은 각 내용 체계의 첫 번째 성취 기준은 1로, 두 번째 성취 기준은 2로 표현한다. 위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여 3~4학년군 국가 수준 성취 기준 14개의 고유번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의 고유 번호

고유번호	성취 기준
4-1-1-1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를 수 있다.
4-1-1-2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4-1-2-1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4-1-2-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4-1-2-3	악곡을 외워서 혼자 또는 여럿이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4-1-2-4	동요나 민요를 듣고 부르거나 보고 부를 수 있다.
4-1-3-1	상황이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4-1-3-2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들 수 있다.
4-1-3-3	제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4-2-1-1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해 구별할 수 있다.
4-2-2-1	표제 음악 등을 듣고 악곡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4-2-2-2	노동요, 놀이요, 춤곡, 행진곡 등을 듣고 음악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4-3-1-1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4-3-2-1	생활 속에서 우리 음악을 찾아 볼 수 있다.

가. 그대로 반영한 경우와 수정하여 적용한 경우의 비교

학교 수행평가계획서의 학교수준 성취 기준이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국가 수준 성취 기준 반영 양상

반영 양상	빈도(N)	퍼센트(%)
그대로 반영	249	17.3
수정하여 적용	1,191	82.7
전체	1,440	100.0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전체 분석대상의 17.3%였고,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수정 및 변형하거나 구체화한 경우는 82.7%로 많은 학교에서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평가 준거로서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와 수정하여 적용한 경우의 예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국가 수준 성취 기준 반영 양상의 예시 비교

영역	국가 수준 성취 기준	학교 수준 성취 기준	
		그대로 반영	수정하여 적용
표현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솔, 라, 시, 도’운지를 익혀 리코더로 ‘퍼프와 채키’를 연주할 수 있다.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2/4박자의 강약을 표현하고 일정한 박을 유지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제제곡: 구슬비)
	제제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제제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2/4박자에 어울리는 리듬을 창작하여 연주할 수 있다.
감상	표제 음악 등을 듣고 악곡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표제 음악 등을 듣고 악곡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종달새’를 감상하고 곡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화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연주회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성취 기준에 따른 상/중/하 성취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실례도 비교해 보자.

<표 18>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예

영역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시기
표현	3학년 수준의 음악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여 노래 부를 수 있다.	상 악곡에 나타난 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여 노래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4월 2주
		중 악곡에 나타난 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여 대체로 적절하게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하 악곡에 나타난 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여 부분적으로 적절히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감상	표제 음악 등을 듣고 악곡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상 표제 음악 등을 듣고, 악곡의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6월 4주
		중 표제 음악 등을 듣고, 악곡의 특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 표제음악 등을 듣고 악곡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다.	
생활화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상 가족, 학급 등의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음악을 발표하고, 바른 태도로 감상할 수 있다.	5월 1주
		중 가족, 학급 등의 행사에서 음악을 발표하고, 바른 태도로 감상할 수 있다.	
		하 가족, 학급 등의 행사에서 음악을 바른 태도로 감상할 수 있다.	

<표 19>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한 예

영역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시기
표현	$\frac{2}{4}$ 박자의 강약을 표현하고 일정박을 유지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상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며, $\frac{2}{4}$ 박자의 강약을 잘 표현하고 일정 박을 유지하며 정확한 박자와 음정으로 노래를 잘 부른다.	5월 1주
		중	$\frac{2}{4}$ 박자의 강약을 표현하고 일정 박을 유지하며, 비교적 바른 음정으로 노래를 부른다.	
		하	$\frac{2}{4}$ 박자의 강약을 표현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으나 일정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박자와 음정이 불안하다.	
감상	‘중달새’를 감상하고 곡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상	리듬의 특징을 설명하고, 시계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연주된 악기를 시계 소리의 특징과 연관 지어 잘 이야기한다.	6월 1주
		중	리듬의 특징을 설명하고, 시계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연주된 악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	리듬의 특징과 시계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연주된 악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다.	
생활화	연주회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상	연주회에 가 본 경험과 느낌, 연주회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바른 태도를 세 가지 이상 이야기한다.	3월 3주
		중	연주회에 가 본 경험과 느낌, 연주회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바른 태도를 한 가지 이상 이야기한다.	
		하	연주회에 가 본 경험과 느낌, 연주회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표 18>의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에는 성취 기준과 그에 따른 상/중/하 성취 수준이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교사가 실제 평가 상황에 이를 적용할 때는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때 같은 학년 안에서도 평가에 사용될 악곡, 음악 요소 및 개념을 교사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시된 평가시기를 보면 일회성 평가로 판단된다. 하지만 성취 기준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일회성 평가가 아닌 여러 단원과 악곡, 다양한 음악 요소와 개념을 활용하여 수업 과정 중에 여러 번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관찰하거나 누적 기록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9>는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교과서 내용, 단

원 및 제재곡, 음악 요소 등을 특정하여 상황에 맞게 구체화 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이다. 이처럼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에 활용할 악곡이나 음악 요소 및 개념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평가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거나 여러 차례에 걸친 과정 지향적 평가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2개 이상을 통합하여 적용한 경우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표 20> 국가 수준 성취 기준 2개 이상을 적용하여 반영한 성취 기준의 예

국가 수준 성취 기준 2개 이상을 적용하여 반영한 성취 기준의 예	국가 수준 성취 기준
바른 자세와 발성으로 음정과 박자에 맞게 노래 부를 수 있다.	4-1-1-1, 4-1-2-1
바른 자세와 알맞은 썸머리로 ‘어머님 은혜’를 부를 수 있다.	4-1-1-1, 4-1-2-1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곡의 분위기를 살려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	4-1-1-2, 4-1-2-1
바른 자세와 자연스런 발성으로 시김새를 살려 제재곡을 부를 수 있다.	4-1-1-1, 4-1-2-1
차례 가기, 머무르기, 뛰어가기 가락을 구별하여 가락의 흐름을 몸으로 표현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4-1-2-1, 4-1-2-2
바른 운지와 텅잉 주법으로 분위기와 썸머리를 살려 리코더로 에델바이스를 연주할 수 있다.	4-1-1-2, 4-1-2-1
대취타와 ‘라데츠키 행진곡’을 듣고 음악적 특징을 비교할 수 있으며, 행진곡의 쓰임을 알 수 있다.	4-2-2-1, 4-2-2-2
풍물놀이를 감상하고 특징을 알 수 있으며, 풍물놀이에 쓰인 악기의 음색을 구별할 수 있다.	4-2-2-1, 4-2-1-1
동물의 사육제를 듣고 특징을 이해하고, 동물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음악 요소를 구별할 수 있다.	4-2-2-1, 4-2-1-1

국가 수준 성취 기준 2개 이상을 통합하여 적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표현 영역의 내용 체계 중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와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에 속한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바른 자세와 주법, 음악의 요소와 개념을 포함한 악곡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 번의 수행과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상 영역에서는 악곡을 듣고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동시에 악곡 안에 표현된 음악의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는 두 내용 체계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성취 기준들이 많았다. 이 역시 악곡을 감상하는 하나의 수행과제를 통해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음악의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는 실음 지필 평가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화 영역에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와 실천 정도를 알아보는 다양한 성취 기준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간혹 하나의 성취 기준 안에 여러 가지 활동과 연계성이 부족해 보이는 내용을 통합하여 적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평가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우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오류가 있는 경우

1,528개의 성취 기준 중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78개로 전체의 5.1%를 차지하였다. 오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묶을 수 있었다.

<표 21> 오류 유형

오류 유형	빈도(N)	퍼센트(%)
영역과 성취기준의 불일치	32	41.0
영역의 잘못된 표기	42	53.9
불분명한 진술	4	5.1
전체	78	100.0

가. 영역과 성취 기준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학교수행평가계획서에 제시된 영역과 그에 따른 성취 기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총 32개였다. 이 중 28개는 생활화 영역에서, 표현과 감상 영역에서는 각각 2개씩 찾을 수 있었다.

<표 22> 표현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성취 기준의 예

- 주요 리듬꼴을 익혀 반복되는 리듬을 알 수 있으며, 가락의 흐름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 가락의 흐름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표 23> 감상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성취 기준의 예

- 좋아하는 음악을 이해하고 소개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리듬악기의 어울림을 살려 리듬 합주를 할 수 있다.

<표 24> 생활화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성취 기준의 예

- 세마치 장단에 어울리게 가사를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간단한 가사를 바꾸고 합주하고 감상할 수 있다.
- 다양한 재료로 리듬악기를 만들어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다양한 타악기를 이용하여 자연의 소리를 잘 표현한다.
- 자연의 소리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바른 자세와 알맞은 쉼여림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 리코더 운지를 익혀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2중주를 할 수 있다.
- 악곡의 일부분을 바꾸어 다른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
- 리코더 운지를 익혀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2중주를 할 수 있다.
- 악곡의 일부분을 바꾸어 다른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 바른 자세와 알맞은 쉼여림으로 노래 부를 수 있다.
-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
- 자진모리장단과 장구의 연주법을 알고 구음으로 읽을 수 있다.
- ‘술, 라, 시, 도’의 운지를 익혀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
- 올바른 주법을 알고 음악에 맞추어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
- 리코더의 운지를 익혀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
- 쉼여림을 살려 기악합주하고 녹음이나 녹화하여 감상할 수 있다.
- 말붙임새를 만들고 노랫말을 바꾸어 부를 수 있다.
-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와 ‘왕벌의 비행’을 감상하고 곡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인사를 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 춤과 음악이 쓰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 비교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악기의 어울림을 느끼며 기악합주를 할 수 있다.
- 4/4박자의 리듬꼴을 바르게 치고 구분할 수 있으며 가락의 방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악기의 어울림을 느끼며 기악합주를 할 수 있다.
- 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여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 모듈별로 여러 타악기로 친구들과 함께 리듬을 연주할 수 있다.
- 악곡에 어울리는 말붙임새를 만들 수 있다.
- ‘작은 세상’을 감상하고 가사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 이야기를 물체 소리나 악기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며 친구와 함께 리코더 2중주를 할 수 있다.
- 말붙임새를 만들고 노랫말을 바꾸어 부를 수 있다.

오류가 특히 많았던 생활화 영역의 경우 가창, 기악, 감상, 창작 활동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나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성취 기준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성취 기준은 그에 따른 성취 수준을 참고했을 때 다음에 제시된 표와 같이 태도나 실천 정도가 아닌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표 25> 생활화 영역에서 오류가 있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의 예 1

영역	성취 기준	성취 수준		방법	시기
생활화	리코더로 텅잉을 하며 악곡의 주선율을 연주할 수 있다.	매우 잘함	리코더의 자세와 주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텅잉으로 악곡의 주선율을 고운 소리로 외워서 연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실기 평가	5월 3주
		잘함	리코더의 자세와 주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텅잉으로 악곡의 주선율을 고운소리로 연주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보통	리코더의 자세와 주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텅잉으로 악곡의 주선율을 고운소리로 연주하는 능력이 보통이다.		
		노력 요함	리코더의 자세와 주법을 바르게 이해하나 텅잉으로 악곡의 주선율을 고운소리로 연주하는 능력이 대체로 적절하지 못하다.		

<표 26> 생활화 영역에서 오류가 있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의 예 2

영역	성취 기준	성취 수준		방법	시기
생활화	다양한 재료로 리듬악기를 만들어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다양한 타악기를 이용하여 자연의 소리를 잘 표현한다.	상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리듬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기를 능숙하게 잘 하며 악기를 이용한 자연의 소리 표현을 잘 한다.	실기 평가	5월 1주
		중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리듬악기를 만들어 연주하기는 하나 여러 가지 타악기를 사용하여 자연의 소리 표현이 서툴다.		
		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리듬악기를 만들지 못하며 타악기 사용법도 제대로 모른다.		

<표 25>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은 명백히 표현 영역의 성취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6>에 제시된 성취 기준은 ‘다양한 재료로 리듬악기를 만들고’라는 활동과 ‘자연의 소리’가 생활 속의 소재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 자체는

생활화 영역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성취 수준을 보면 리듬악기를 잘 만들었는지, 자연의 소리를 악기로 잘 표현하였는지 등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주하기를 능숙하게 잘 하며’, ‘자연의 소리 표현을 잘 한다’, ‘여러 가지 타악기를 사용하여 자연의 소리 표현이 서툴다’, ‘타악기 사용법도 모른다.’ 등을 성취 수준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리듬악기를 만드는데 즐겁게 참여하는 지, 자연의 소리를 악기로 표현하는 데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지, 다른 친구들의 연주를 바른 태도로 관심을 가지고 감상하는 지 등에 초점을 맞추는 성취 수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생활화 영역은 실생활에서 음악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7개정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되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평가 방법’항에서 생활화 영역은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음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화의 실천 정도 등을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은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생활화 영역의 성격에는 적절하지 않은 평가이다. 생활화 영역은 가창, 감상, 기악, 감상, 이해 등 음악의 전 영역을 포괄하여 성취 기준을 세울 수 있으나 평가의 초점은 음악적 능력이나 기능이 아닌 태도, 내면화의 정도, 음악의 활용 및 실천 정도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나. 영역을 잘못 표기한 경우

학교수행평가계획서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이 아닌 ‘이해’와 ‘활동’으로 영역을 잘못 표기한 경우가 42회 나타났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영역을 잘못 표기한 경우 성취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표현’과 ‘감상’ 영역으로 환원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없었으나, 현장 교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 것은 분명하다. 2007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활동/생활화’ 영역이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으로 재구성된 배경과 이유를 아는 것은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교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다. 진술이 불분명한 경우

학교수행평가계획서에 제시된 학교 수준 성취 기준 중에는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 ‘리코더로 퍼프와 재키를 연주할 수 있다.’, ‘가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가락을 구별할 수 있다’와 같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하게 진술되어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4개 중 3개의 성취 기준은 함께 제시된 성취 수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었다.

-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
→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곡의 특징을 살려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
- 리코더로 ‘퍼프와 재키’를 연주할 수 있다.
→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퍼프와 재키’를 연주할 수 있다.
- 가락을 구별할 수 있다.
→ 올라가는 가락, 내려가는 가락, 머무는 가락을 구별하고 이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다.

위에서는 세 가지 범주의 오류가 있는 성취 기준을 살펴보았다. 학교 수행평가에서의 학교 수준 성취 기준은 이후 상/중/하 등의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 문항, 그리고 채점 기준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된다. 따라서 학교수행평가의 성취 기준을 수립할 때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가 수준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영역의 성격에 적절한지,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진술로 이루어진 건 아닌 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평가의 불균형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학생 입장에서 2년 동안의 3~4학년군을 마칠 때 평가에서 소외되는 내용 체계와 활동이 존재한다. 내용 체계에서는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가, 활동에서는 창작 활동이 학기별, 학년별, 3~4학년군으로 진행될 때마다 누적되어 평가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평가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내용 체계와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평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입장에서 3~4학년군을 마쳤을 때를 종적으로 분석하였다. 5~6학년까지 포함하여 종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평가의 편중과 소외가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 번도 평가 받지 않는 내용 체계나 활동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평가의 편중과 소외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누적된다면 학생에게 고른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여 결국 학생의 포괄적인 음악적 역량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학년군 체제를 도입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를 상세화한 성취 기준도 학년군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1년 단위 학급 담임제를 시행하고 있어 학년군 체제를 적용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교육과정상의 학년군 체제와 실제 학교에서의 학년별 체제간의 간극으로 인해 학년군을 마쳤을 때 평가에서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내용 체계와 활동이 나타나는 현상이 심화되었으리라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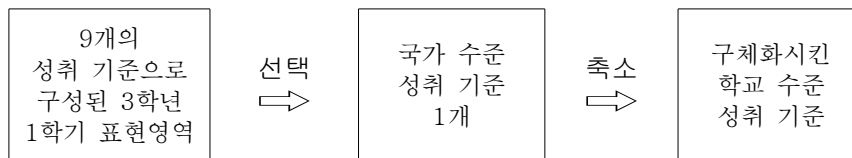
이와 같은 평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악과의 평가는 계획단계부터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 내용 체계, 활동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 균형 있는 평가가 시행되려면 동일 성취 기준을 갖는 학년군 안에서 상하 학년별, 학기별 평가 계획이 분절되지 않고 내용 및 활동의 균형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동일 학년군의 교사들이 함께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면 2년 동안 학생이 경험할 평가에서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보다 균형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학년군 체제에 맞게 2년 연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해마다 교사 구성원이 달라지는 학년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2년 동안 일관성 있게 시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소극적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한 학년 안에서도 학기별로 평가계획을 세우기보다 1·2학기 평가 계획을 학년 초에 함께 세우는 것을 권장하며, 학기별로 평가 계획을 세운다면 2학기 평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1학기 평가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중복되거나 소외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년군의 상급 학년에서는 하급 학년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중복되거나 소외된 부분을 최소화하여 학생 입장에서 학년군의 학습을 마칠 때 균형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지엽적인 평가

분석 결과 많은 학교에서 학기별로 대영역당 1회, 국가 수준 성취 기준 1개를 부분적으로 축소시킨 성취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학기별로 한 영역 당 1회, 국가 수준 성취 기준 1개를 부분적으로 축소시켜 시행하는 수행평가의 관행은 지엽적인 평가로 영역 전체의 평가를 대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의 타당성을 저해한다.

앞의 <표 23>에서 3학년 1학기 표현 영역 평가의 성취 기준은 ‘ $\frac{2}{4}$ 박자의 강약을 표현하고 일정 박을 유지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이다. 이는 국가 수준 성취 기준 ‘4-1-2-1.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를 구체화한 경우이다.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 $\frac{2}{4}$ 박자의 강약’과 ‘일정박’으로 구체화시켜 이를 이해하여 노래로 표현하는 것을 수행평가의 성취 기준으로 삼았다.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기’에는 제시된 것 외에도 ‘장단의 세를 살려 노래 부르기,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 악곡의 셈여림과 분위기를 살려 노래 부르기, 음의 길고 짧음과 높낮이를 구별하여 노래 부르기, 악곡의 말붙임새를 이해하며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내용이 포괄되어 있다. 제시된 학교 수준 성취 기준은 이 중 ‘ $\frac{2}{4}$ 박자의 강약’과 ‘일정 박’을 특정하여 국가 수준 성취 기준 4-1-2-1을 구체화시킨 경우로, 한편으로는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부분적으로 축소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표현 영역의 9개 성취 기준 중 하나에 그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당 학기 표현 영역은 이 수행 과제 하나로 영역을 포괄하는 또는 영역을 대표하는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영역의 부분적 평가 내용이 한 학기 해당 영역 평가의 전부로 대체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행평가의 한계 중 하나로 적은 수의 평가 과제에 대한 수행 결과가 좀 더 넓은 영역 또는 구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학년 1학기 표현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과 범위, 그리고 목표가 이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되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엽적인 수행 평가가 영역을 대표하는 평가로 대체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표 27> 지엽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1개를 부분적으로 축소한 성취 기준으로 한 학기 영역 당 1회 평가하는 지엽적인 평가로 해당 영역의 평가를 대체하는 수행평가 관행을 지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표현 영역의 경우 학기당 1회 평가보다는 평가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표현 영역은 전체 14개의 성취 기준 중 9개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영역으로 가창, 기악, 창작 활동을 포함한다. 그만큼 내용의 양이 많고 범위가 넓으므로 평가 횟수를 학기당 1회로 한정하기보다 2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영역의 목표를 보다 폭넓게 아우르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단순히 평가 횟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거나 중복된 평가가 되지 않고 영역의 목표를 고루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학교 수준 성취 기준 또는 성취 과제를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앞에서 표현 영역의 내용 체계 중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와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에 속한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는 하나의 악곡을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바른 자세와 주법, 음악의 요소와 개념을 포함한 악곡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 번의 수행과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함께 「덕석물이」, 「남생아 놀아라」 놀이를 즐겁게 하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우리 음악을 찾을 수 있다.’와 같은 성취 기준은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우리 음악을 찾아보는 두 가지 국가수준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한 예이다. 이와 같이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지엽적인 평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나의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적용할 때는 악곡이나 악기를 특정하거나, 음악의 요소와 개념을 한정하는 것보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을 두루 포괄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비상교육 출판사의 음악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표현 영역의 학교 수행평가 성취 기준을 ‘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로 정했다면 이에 해당되는 악곡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표 28> ‘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악곡과 내용 예시

악곡	내 용
꼭꼭 숨어라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주고받으며 노래 부르기
리듬 악기 노래	4박자의 썸여림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옥수수 하모니카	같은 가락과 다른 가락을 구별하여 노래 부르기
어머님 은혜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알맞은 썸여림으로 노래 부르기
고사리 꺾자	떠는 소리를 살려 노래 부르기
아리랑	세마치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한 학기 동안 학생은 위와 같이 여러 악곡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요소와 개념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급 전체, 모둠별, 개인별로 노래 부르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교사는 학생의 수행 과정을 사전에 세운 평가 기준에 따라 관찰하고 기록하며, 학생의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수업 과정 중 병행하여 수업과 연계한 자연스러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즉흥적인 인상 비평에 그치는 평가가 되지 않고 평가가 수업 과정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사의 평가 관점, 평가 기준, 세부 채점 기준, 체크리스트 및 관찰 일지, 자기 평가지, 상호 평가지 등을 개발하여 수업과 연계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 생활화 영역의 취지와 성격에 부적합한 평가

생활화 영역은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7개정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되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평가 방법’항에서 생활화 영역은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음악에 대한 태도와 생활화의 실천 정도 등을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수행평가에서는 생활화 영역의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이 음악에 대한 참여도와 태도, 생활화의 실천 정도나 내면화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표현 기능에 중점을 둔 평가가 시행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생활화 영역은 가창, 감상, 기악, 감상, 이해 등 음악의 전 영역을 포괄하여 성취 기준을 세울 수 있으나 평가의 초점은 음악적 능력이나 기능이 아닌 태도, 내면화의 정도, 음악의 활용 및 실천 정도에 맞춰져야 한다.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음악을 의미 있게 즐기고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화 영역의 평가는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생활화 영역의 취지를 살려 교수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지, 음악을 즐기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기회를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과 학생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음악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성찰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제언

교육에서 평가는 교수(teaching/instruction)와 학습(learning)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별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 학년군을 마쳤을 때 학습자가 도달하여야 할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교수·학습 및 평가에 있어 교사와 학생이 기대하여야 할 수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준거로서 학교수행평가계획서에 제시된 학교 수준 성취 기준의 양상을 탐색해봄으로써 초등학교 음악과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연구 결과 및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초등학교 음악과 평가는 표현, 감상, 생활화라는 대 영역별 평가는 균형 있게 실시되고 있으나, 내용 체계와 활동에 있어서는 균형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다.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기’, ‘음악의 요소 및 개념 이해하기’와 창작 활동은 평가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평가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누적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해당 부분의 평가 결과가 환류 되지 않아 성취도 확인, 동기 유발, 교수학습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년에서는 2학기 평가 계획을 세울 때 1학기 계획을 참고하고, 동일 학년군 안에서는 상급학년 평가 계획을 세울 때 하급학년의 평가계획을 참고하여 학생 입장에서 편중되거나 배제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부분의 평가가 소홀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교사 대상 설문 등을 통해 밝혀내고,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구체적인 평가 도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와 교사이용도가 높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보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미 연구 개발된 훌륭한 평가 도구들이 현장에 확산되지 못하고 연구로만 그치는 것은 교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플랫폼에 자료가 탑재·공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수행평가계획서에 제시된 학교 수준 성취 기준은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수정 및 변형 또는 구체화시켜 반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때, 많은 학교에서 관행처럼 시행되는 ‘한 학기 한 영역 당 1회,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을 부분적으로 축소시킨 성취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엽적인 평가는 교육 과정의 대표성과 적절성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고민과 실천이 요구된다.

셋째, 생활화 영역에 제시된 학교 수준 성취 기준은 영역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생활화 영역의 평가는 음악적 역량이나 기능이 아닌 음악을 대하는 태도, 내면화의 정도, 음악을 활용하고 실천하는 정도 등에 평가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등급을 나눠 평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평가는 경쟁이나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어야 한다. 전통적인 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수행평가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오래 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정착된 수행평가의 실제 모습은 관행화, 정형화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생 입장에서 종적으로 3~4학년을 마쳤을 때 음악과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5~6학년까지 포함하여, 즉 3~6학년까지 학생 입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종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현행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과 평가의 실태를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와 함께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고민과 실천을 담은 현장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_____ (2010).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_____ (201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민경훈 외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박순경 외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0-23.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송진범 (2004). 음악 교육학. 서울: 학문사.
승윤희 외 (2013). 예비교사와 현장교육을 위한 초등 음악교육. 서울: 학지사.
양종모 (2002). 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함희주 외 (2017).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홍미영 외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
구. 한국교육개발원.

【학술지 및 간행물】

- 김신영 외 (1998).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 개발에 대한 고찰. **교육
평가연구**, 11(1), 47-73.
김용희 (1999). 아츠 프로펠의 수행평가. **음악교육연구**, 18, 1-23.
박주만 (2012). 국악교육의 수행평가를 위한 루브릭 개발 연구. **국악교육**, 33,
69-100.
이경언 (2005). 음악과 교육과정 평가 방법 분석 연구. **교원교육**, 21(4), 74-89.
이경언 외 (2012). 음악과 성취기준의 개발 양상 및 개선 방향 고찰. **음악교육연
구**, 41(1), 113-140.
장기범, 허연수 (2001). 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음악 수행평가. **음악교육 창간호**,
68-134.
조상연 (2015). 초등교사가 교과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양상 탐색.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5(8), 587~614.
최은식 외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유형 고찰. **음악교육연구**, 44(1),
111~139.

현경실 (2012). 중학교 음악과의 수행평가 실태조사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16(4), 981-999.

【학위논문】

- 강명성 (2002). 초등학교 음악과 수행평가 실태.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영철 (2009). 초등학교 음악과 국악부문 수행평가 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영 (2002). 음악과 수행평가의 평가도구 개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 류정민 (2014). Eisner의 교육과정 논의에 근거한 목표 진술과 평가 방식에 대한 고찰-2009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목은아 (1998). 바람직한 음악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관기 (2004). 중학교 음악과 수행평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윤 (2002). 수행평가에 대한 중학교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the Achievement Standards for 3rd and 4th Grade Elementary School Music Performance Assessment

Sun-ok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chievement standards for elementary school music performance assessment to derive problems from analysis results, and thus to find out improvement measures.

To that end, 112 schools or 20% were randomly sampled from among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Seoul so as to collect 448 copies of performance assesment plans for the first and second semesters of 3rd and 4th grades. 1,528 achievement standards, revealing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the music subject assessment in elementary schools continued to exclude ‘appreciation of Korean music value’, ‘making creative music’, ‘understanding of musical elements and concept’ and ‘creative activity’ among the seven categories of assessment stipulated under the curriculum.

Second, the school-level achievement standards stipulated in the school performance assessment standards were found to have remarkably revised, modified, and specified the national-level achievement standards rather than reflecting the standards as they were. In this connection, if one of the national-level achievement standards is partially reduced, and is used in assessing one area once per semester, the assessment would be one-sided.

Third, in many cases, the achievement standards and achievement levels specified for the life category were found to be unfit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egory. The assessment of the life category should focus not on musical capabilities and functions, but on the attitude about music,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music, and the degree of enjoying and utilizing music.

There is a need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performance assessment in

place in the field has been routinely practiced and standardized, thus creating yet another side effects without embodying the purpose of performance assessment.

Key words: music assessment, performance assessment, achievement standards, 2009 revised music curriculum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11일(10월 31일), 게재확정일: 11월 1일